

News Release

보도자료 2023-37(총 6매)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희망 게재일	즉시
문의	한국YWCA연합회 미디어소통팀 이주영 02-774-0230		

한국YWCA, 2023 정책협의회 열어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국중점운동으로,
지역별 이슈와 대안 제시하는 지역특화운동으로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 운동 전개”

- 지난 2년간 탈핵기후생명운동과 전국공통과제 YWCA RE100운동 실행평가 후 한국사회 변화 예측하여 2024-2025 YWCA 운동 및 운영정책 제안
- 2024-2025에도 정의·평화·생명 가치와 시대정신에 발맞춰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채택 지역특화운동으로 성평등, 평화·통일운동, 청(소)년 운동 전개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10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YWCA 정책협의회는 2022-2023 YWCA의 운동 및 운영정책을 평가하고 2024-2025에 전개할 운동 및 운영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한국YWCA연합회와 50개 회원YWCA의 정책협의 대표단(각 회원YWCA의 회장, 사무총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 등 총 170 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YWCA 운동과제 세미나와 2024-2025 YWCA 운동 및 운영 정책제안, 광역시 및 YWCA 도협의회별 협의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정책협의회 첫 순서인 <YWCA생명살림을 위한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가 말씀을 선포했다. 기도회 설교는 현재와 같이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메타노니아(repentance 회개라는 뜻)’의 삶을 위해서는 힘과 권력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생명존중과 연대의 정신으로 상호의존의 창조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운동과제 세미나에서는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기초발제 ‘정부 에너지정책과 YWCA 중점운동’에서 한국의 에너지 현황 및 세계 에너지정책 흐름과 시사점을 짚으며,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살펴보았다.

2024-2025 탈핵기후생명운동 분야의 YWCA중점운동 과제 중 하나인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별 제안도 다루었다. 이어진 YWCA운동 사례발표 시간에서는 ‘고양YWCA 기후정책 모니터링’(발표: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청주YWCA RE100 운동’(발표: 청주YWCA 이해정 사무총장), ‘부산YWCA 고리2호기 폐쇄운동’(발표: 부산YWCA 김정환 사무총장), ‘대전YWCA 우리학교 에너지 탐험대’(발표: 대전YWCA국장) 등 회원YWCA 운동 사례를 공유하였다.

오후 시간 세션인 ‘YWCA운동 및 운영 정책 제안’에서는 지난 5월 연합회 법인이사 워크숍에서 2022-2023 정책평가와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전국 사무총장확대운영위원회 협의와 전국 회원YWCA의 설문조사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2-2023 YWCA 운동 및 운영정책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2024-2025 YWCA 운동 및 운영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운영정책은 조은영(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이사가, YWCA 운동정책은 이은영(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이사가 각각 발표하였다.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 제안의 기본 방향은 ▲한국YWCA 목적문에 명시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 전개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지속 전개 ▲지역운동 강화 ▲시민운동 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됐다.

끝으로 광역시·도협의회 협의에서는 YWCA 중점운동 전개를 위한 ‘2024년 광역시·도협의회 주력과제 선정’을 위해 9개 도협의회별 소모임과 광역협의회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4-2025년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특화운동으로 광역시·도협의회별 지역운동에 대한 총 10개 그룹의 논의 발표도 이어졌다.

2023 한국YWCA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2024-2025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 제안은 2024년 2월에 개최되는 한국YWCA 정기총회에서 전국 51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대표가 모인 가운데 확정하게 된다.

긴 시간 이어진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자 모두는 YWCA가 기독교시민여성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4-2025 전국중점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과 각 지역의 특화운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며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2024-2025 전국중점운동으로 제안한 '탈핵기후생명' 운동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이사, 실무활동가 포함 총 170여 명이 모여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2023 한국YWCA정책협의회 'YWCA 생명살림 기도회'를 진행하는 원영희 회장



중점운동 과제 세미나에 이어 고양Y, 청주Y, 부산Y, 대전Y가 운동사례를 발표하였다.

